

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

회의장소	서울새활용플라자 4층 교육실
일 시	2017.12.22.(금) 15:00~16:00
참석자	[사회자] 이대희 (서울시 자원순환과 팀장) 이영혜 (위원장, 디자인하우스 대표), 이보미 (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), 임혜선 (아름다운 가게, 사무국장) 조선희(여미 갤러리), 최홍식 (자원순환과 과장), 윤대영 (서울디자인재단 전략사업본부장)
회의 내용	
<p>1. 개회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활용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개최 - 회의 순서 및 위원님들 소개 - 이영혜 위원장, 이보미, 임혜선, 조선희, 최홍식, 윤대영 참석 <p>2. 제2회 서울새활용전 결과보고 및 추진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개요, 사업목적, 사업 추진방향, 전시구성 발표 - 전시컨셉: <지구를 위한 약속> 타이틀로 새활용 제품에는 철학, 이야기, 문화가 담겨있다는 내용으로 구성 - 해외초청전 : 피트 하인 이크(네덜란드) 작가 작품 전시 - 시민참여전시 - 운영성과: 총 84일동안 진행했으며, 17890만 참여. 개관워크숍 및 시민 참여형 이벤트, 전시강연프로그램 진행 - 홍보: 단체관람, 가족단위관람 유치, 언론매체 노출되어 39곳에서 기재, sns에 활발히 활동 - 설문지 통계 : 관람객 만족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음. 접근성에서 불만족. <p>⇒ 결론적으로 이미 새활용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번 전시를 관람한 경우가 많아, 경험에 기반하면 새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</p> <p>3. 2017년 사업결과 및 2018년 사업계획보고</p> <p>[2017 사업결과 발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관행사 이후 교육, 야외마켓, 소재 라이브러리, 방문객 수, 교육진행 횟수, 교육기관과 MOU 체결, 워크샵 및 포럼 개최 등 현황 발표 - 홍보 면에서 언론 노출 수, 홈페이지 방문객수 발표 - 공간: 카페, 레스토랑 운영, 꿈꾸는 공장 2018년 오픈 사업본격화할 예정이며, 시설운영관리에서 보수문제 아직 남아 있음 <p>[2018년 운영계획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 업사이클 디자인워크 사업계획 중 - 새활용 소재은행 운영방안: 데이터베이스 축적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, 소재교육프로그램 기획 중 - 친환경 인증제도 벤치마킹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증제도 기획 중 - 32개 업사이클링 기업 중 성공사례 발표 - 새활용마켓 + 팝파티 + 도농상생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 - 셔틀버스 운행 중: 픽업서비스가 수요가 많았음 - 카페 '자리' 오픈 - 새활용 포럼: 이미 2회 개최했고, 4회 정도 개최하여 정부 안전에 기반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출 	

할 예정

- 꿈꾸는 공장 3월부터 본격 운영 할 예정
- 자원순환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

4. 간담회

1) 전시

- 이영혜: 예산만 있다면 전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.

2) MOU 체결

- 이보미: 대학과 새활용플라자간의 친밀한 MOU 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
- 윤대영: 형식적인 MOU보다 언제든지 협력할 관계의 준비가 되어있다.
- 이영혜: MOU보다 멤버십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.

3) 소재 라이브러리

- 이보미: 소재 라이브러리 온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
- 윤대영: 직접적으로 모든 소재를 공급할 수 있으니,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기획하고 있다.
- 이영혜: 모든 것은 홍보 문제. 홍보가 잘 되어야 사람들이 유입 될 것이며, 콘텐츠에 목표와 목적이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.

4) 입주 스튜디오와 리버마켓

- 조선희: 리버마켓에 입주자 스튜디오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다.
- 이영혜: 리버마켓을 입주자 중심으로 기획했으면 좋겠다. 매번 2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홍보성도 있고, 우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다.

5) 예산

- 서울시: 점차 새활용플라자가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.
- 윤대영: 새활용플라자는 DDP처럼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, 아직은 고민 중이다.
- 이영혜: 입주기업의 내실을 튼튼해, 자립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입주자 기업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전기도 기획하고, 홍보도 해야 새활용플라자가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하지만, 아직 서울시에서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.